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5. 3. 12.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후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4장 17~20절

다같이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본문에는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낸 아브라함이며, 다른 한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또한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곳 '살렘'은 '평화'를 뜻하며,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곳의 지명과 이름만으로도 그의 신앙과 인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완전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셨던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 7:11~17)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두 인물의 신앙적 동질성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들과 같은 신앙적 동질성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로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재'는 '창조주' 혹은 '주인'이란 뜻을 갖습니다. 또한 '천지'는 창 1:1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말로, 삼라만상을 가리킵니다. 즉, 위대한 신앙의 두 인물은 모두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진정한 주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이심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이심을 고백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믿음의 두 사람은 하나님을 주재이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the most high God)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줄 만한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19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복을 주시며, 주실 수 없는 복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주옵소서”

신앙은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같은 신앙적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삶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눔

다

같

이

- 1.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신앙적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 2.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 3.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삶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중

보

기

도

베이지역과 미국을 위해

다

같

이

- 1. 미국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 하도록
- 2.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 3.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화합과 평화가 임하도록
- 4. 베이 지역을 덮고 있는 맘몬과 음란의 영이 떠나가도록
- 5. 베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로 고백하며,
모든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